

[기고]소소심은 나와 이웃의 안전지킴이

기사등록 일시 : [2014-04-15 16:25:26]

【인제=뉴시스】

소소심이란 단어는 무엇인가?

생소한 이 단어는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의 앞 글자를 모아 만든 말로 국민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 집증을 도모하기 위한 홍보 전략 중 하나다.

소소심의 첫 소는 소화기다.

화재 발생 초기 소화기구 중 가장 효과가 큰 소화기는 소화제를 이용한 냉각·공기차단 등의 효과를 이용해서 불을 끄며 그 위력은 소방차 한 대와 필적한다. 소화기 사용법은 화재 발생 장소로 소화기를 운반하여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불쪽으로 향한 뒤 손잡이를 움켜쥐고 분말을 골고루 분사하면 된다.

소소심의 두 번째 소는 소화전이다.

우리는 주변 건물(아파트 등) 복도에서 옥내소화전을 찾아볼 수 있다. 화재 초기 진화 뿐만 아니라 소화기로 제압 불가능한 큰 화재에도 용이한 옥내소화전 사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화재 발생 시 소화전함을 열고 소방호스를 꺼내어 노즐을 잡고 불을 향해 밸브를 개방 방수하면 된다.

소소심의 마지막 심은 심폐소생술을 말한다.

4분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춘 환자를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응급 처치법이다. 심장이 멈췄을 경우 최초 4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는데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4분은 너무 짧다. 즉 119구급대 도착 전까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길을 지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편안한 자세로 바로 눕혀 의식을 확인한다. 의식이 없으면 주변 사람 중 한사람을 지목하여 119 신고와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하고 가슴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한 주기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 구급

대가 도착하거나 환자의 의식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실시한다.

소소심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지만 평소에 익히지 않으면 각종 재난 발생 시 당황하게 된다. 인근 소방서마다 소소심 체험장이 있으니 이웃의 안전지킴이가 될 모든 국민은 적극적으로 교육 신청하기를 바란다.

국민 모두의 관심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손쉽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첫 걸음이다.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강중열